



즉시 배포용: 2020년 2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한편, 독감 유행이 유행하고 있다는 인식 제고 노력

여전히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진 사례 없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확진 사례 및 입원자 수 증가

독감 주사 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장소는 [여기](#)에서, 지역 내 독감 사례는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뉴욕 주민 22명의 샘플을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로 보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16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의 샘플 두 개와 뉴욕시 이외의 뉴욕주 샘플 네 개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총 여섯 건의 샘플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뉴욕주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독감 발병 사례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발표했으며, 독감 시즌이 최고조를 향해 진행됨에 따라,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권장된 예방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없지만,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뉴욕 주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손을 씻기와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는 등 모든 분들께 상식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연방, 주정부 및 지역 차원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주정부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진단 테스트 사용을 허가했으며, 뉴욕주 보건부 워즈워스 센터(Wadsworth Center)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즈워스 센터는 전자담배

관련 질병, 사스(SARS), 합성 카나비노이드와 같은 수많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으로, 테스트 시행 전, 적절한 검증 프로토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인플루엔자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에서 계절성 독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62개 카운티 모두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험실 확진 사례가 있습니다. 10월에 독감 시즌이 시작된 이후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사례와 입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 시즌은 주로 10월부터 5월까지이며, 2019-20 시즌은 아직 피크 상태입니다.

지난주 1,889 명의 뉴욕 주민이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으로 인해 입원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독감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13,460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실험실에서 확인된 17,231건의 독감 사례가 주 보건부에 보고되었으며, 이 수치는 그 전주보다 15 퍼센트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독감 시즌 일주일 동안 실험실에서 확인된 독감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17-18년이며, 그 수는 18,252 건입니다.

이번 시즌 실험실에서 확인된 뉴욕주의 독감 사례는 총 89,597 건으로 보고되었으며, 독감으로 인한 아동 사망이 세 건 발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활동 데이터는 뉴욕주 독감 추적기(New York State Flu Track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감 추적기는 지방, 지역 및 뉴욕주 전체 인플루엔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뉴욕주 건강 커넥터(New York State Health Connector)의 대시보드입니다.

1월 3일, 뉴욕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 보건 권고를 발행하여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뉴욕주 전역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확진 사례는 없지만, 독감은 가까이에 있으며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독감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때 자주 손을 씻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로 가리고 집에서 쉬는 등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독감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보건부는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지만, 일상적인 예방 조치는 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최소 20초 이상 자주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아플 때 집에 머무르십시오.
-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을 가리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증상을 나타내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했거나, 이 지역을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주정부 핫라인 1-888-364-3065로 전화하여 보건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뉴욕 주민들이 계속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신설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현재 지역 보건부서를 위한 활동 및 관리 지침을 비롯해, 학교를 위한 보건부와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서신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